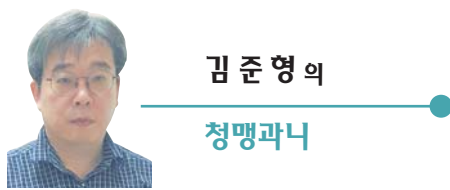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김 준 형 역
청맹과니

18세기 후반,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으로 공포정치의 대명사, 로베스피에르가 집권하게 되었다. 어느 날, 로베스피에르는 ‘모든 어린이는 신선한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우유값을 반값으로 내리도록 했다. 이 명령으로 어린이들은 신선한 우유를 마음껏 마실 수 있었을까? 아니었다. 우유값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자, 낙농업자들이 소를 도축해서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우유값이 싸진 것이 아니라, 우유가 아예 사라져 버린 것이다. 로베스피에르는 생산원가를 낮추려고, 이번에는 건초가격을 반값으로 내리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건초를 뿔감으로 팔아버려서, 건초까지 사라져 버렸다. 이 이야기는 국가의 무분별한 개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숙고하게 만든다.

최근 선생님들의 현장체험학습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2022년의 사고에서 시작된다. 체험학습을 나간 초등학교생이 주차하

던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생님들은 ‘교사가 인생 전체를 걸고, 책임을 지면서 체험학습을 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선생님들의 항변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어린 학생들이 야외에 나오면, 통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7년 있었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이 그 예이다. 당시 신생아들의 사망원인은 ‘시트로바터 프론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간호사 2명, 의사 3명이 입건되었고, 3명이 구속되었다. 구속된 3명 중 한명은 유방암 3기로 투병 중이었다. 2022년 대법원에서는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인간이 통제할 방법은 없다. 의사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손을 자주 씻고, 주변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일밖에 없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방법이 있었다면, 코로나19 같은 사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후폭풍은 무서웠다. 소아과 의사들은 통제가

불가능한 세균과 바이러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전국의 대학병원에서는 소아과 전공의 지원자가 사라졌고, 기존의 소아과 전문의들도 소아과 진료를 포기했다. 결국 ‘소아과 오픈런’이란 말까지 생기는 지경이 된 것이다.

물론 체험학습에서 학생이 사망한 사건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 이대목동병원의 사건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 부모님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가 가능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에 대해서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체험학습의 관리책임을 과도하게 묻게 되면, 안전한 체험학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학습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 소아과에 과도한 책임을 물으면, 안전한 소아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아과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 이미 200년 전에 로베스피에르가 알려 준 사실이다. 과연 국가는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일까? 국가는 처벌만 하면, 할 일을 다 한 것일까? 2022년 사고 이후, 국가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우리마음병원장

지원 절실한 K-배터리



기지 수첩
이 승 용
<산업부>

공부를 잘 하는 두 사람이 있다. A는 집안이 부유해 학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B는 집안이 가난해 지원 없이 교과서만으로 공부한다. 시험 결과 A는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고 B는 더 이상 발전 없이 제자리였다. 집안의 지원이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글로벌 배터리시장이 이렇다. A는 중국이고 B는 우리나라다. 중국 정부는 1조 위안(약 200조원) 규모의 펀드를 설립해 배터리 등 산업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CATL, BYD 등 자국 기업에 1조~1000억원(60억위안) 규모의 자금을

들여 차세대 전기차의 핵심 분야인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R&D)을 독려하고 있다. 중국은 설비 투자 및 세금 감면 등으로 자국 배터리 기업 총 투자액의 최대 40%가량을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2027년까지 나트륨 배터리, LFP 배터리 등 차세대 보급형 배터리 기술 개발에 약 3000억원, 2028년까지 전고체, 리튬메탈, 리튬황 등 유망 배터리 기술 개발에 총 117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이지만 중국과 비교하면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중국은 값싼 인건비에 보조금까지 들고 덤비다 보니 우리나라로서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지난 2020년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시장 점유율은 34.7%에서 현재는 17.7%로 줄었고 중

국 CATL과 BYD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30.7%에서 55.1%로 증가하면서 독보적인 1위이다.

기업들이 뚝뚝하다고 해도 정부의 연구비 지원이 없으면 결국 제자리걸음을 걷게 된다는 것을 최근 4~5년 사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배터리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여야 모두 힘이 실리고 있다.

지속적인 투자여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 이월공제방식으로는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직접환급, 제3자양도제 도입을 통해 투자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다. 최대규모 미래먹거리 산업 경쟁탈진에서 밀리는데도 정부가 방관한다면 한국 경제 근간을 허무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lsy266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4월 29일 (음 4월 2일)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일이 풀리니 침체하지 말고 능력을 정비. 48년생 먼저 양보하면 나중에 이득이 발생한다. 60년생 소지품 관리 유의. 72년생 잘 지내면 친구와 의견충돌이 예상. 84년생 낮12시에 충살冲殺이 일어나니 교통사고와 언행에 유의.

 소

37년생 순간 변화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진중하여지자. 49년생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기는 어려울 듯. 61년생 작은 일에 과민반응은 손실로 연결. 73년생 이직하여서 좋을 것이 없을 텐데. 85년생 이웃과의 관계에서 외로워 마라.

 호랑이

38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천수경을 읽어보라. 50년생 성실한 자세가 승진에 유리한데. 62년생 답답해도 인내심을 가져야 할 듯. 74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말조심. 86년생 하기 싫어도 해야 하니 이왕이면 시비를 가리지 말고 하라.

 토끼

39년생 일에 손이 안 잡혀도 진행하면 이득이 발생. 51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63년생 험담을 줄이니 동료와의 관계가 개선된다. 75년생 친절함 이상에게 의심보다는 주관을. 87년생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친구의 도움을 얻도록.

 양

40년생 도난 우려가 있으니 소지품 관리에 유의. 52년생 폭음을 삼가라. 64년생 남을 탓하기 전에 나의 결점도 찾아라. 76년생 연인의 돈 요구에 스트레스가 쌓일 텐데. 88년생 부동산에서 이득이 발생하니 빈집에 소 들어오는 하루.

 뱀

41년생 좋은 정보로 영업에서 이득을 얻는다. 53년생 요행수보다는 공부해서 투자하도록. 65년생 이성에게 집착하지 말아야 문제가 해결된다. 77년생 상대방이 외화내빈이나 무시하지는 마라. 89년생 평소애 인색하니 언제나 외롭다.

 말

42년생 업무의 능력으로 즐거움이 동반된다. 54년생 과다한 사치로 발등에 돌 찍힌다. 66년생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있어 하루가 바쁘다. 78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데. 90년생 무리한 일 처리는 오히려 구실을 부른다.

 양

43년생 지나간 연인에 연 연마라. 55년생 현재 위치를 생각하여 남의 험담하지 않도록. 67년생 평소 쌓아둔 신용으로 조력자를 만나다. 79년생 교만으로 직장에서 비난받을 수 있으니 겸손해야. 91년생 행동반경이 좁아지니 청결에 힘써라.

 원숭이

44년생 목돈이 들어오니 소문내지 않도록. 56년생 종교나 정치에 관여 말고 할 일 목록히. 68년생 가정사가 풀린다. 80년생 이득이 적어도 내일을 위해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92년생 관재구설에 휘말릴 수 있으니 전화금융사기 유의해야만.

 닭

45년생 3시 지나 돈 문제는 해결된다. 57년생 문서운이 있으니 매매에 이득이 발생. 69년생 충동적 여행은 사서 고생한다. 81년생 종이 절이 싫으면 불평하지 말고 종이 떼내야 할 텐데. 93년생 득과 실을 비교하지만, 돈에 대해 인색하지는 말자.

 돼지

46년생 뜬소문에 휩쓸려서 손재수가 따르니 확인하여 실행. 58년생 회식 자리에서 말조심할 것. 70년생 건강은 젊어서 예방하는 것이 최선. 82년생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했으니 힘내자. 94년생 모르는 사람에게 굳이 조언할 것 없다.

 돼지

47년생 동료와 의견을 화합하여 진행하도록. 59년생 영업에서 이득이 생기니 힘써라. 71년생 감정조절을 잘해야 할 것. 83년생 집안의 집모습이나 정리를 하여 운을 개선하자. 95년생 명의의 이치는 예측과 우연성도 함께하여 신神의 학문이라 할 수.

김상회의四季
검약과 덕

근대 경제를 일구고 빛낸 고 정주영 회장은 검소의 대명사, 그러한 남편의 아내로서 역시 검박하기 이를 데 없는 부인 변 여사님은 1980년 어느 날 가회동 자택에 도둑들이 마주하자 얼어 붙어버렸다. 도둑들은 여사님의 머리에 휘발유를 붓고는 소리를 지르면 불을 붙이겠다고 겁박을 하고는 귀중품을 찾아 여기저기를 뒤집었으나 집안에는 20년 된 소파와 텔레비전 한 대가 고작이었다고 한다.

무슨 재벌 집이 이러냐고 기가 막혀하는 도둑들에게 당시 월급 이백만 원과 아들 결혼식에 주려고 준비해 놓았던 시계를 주며 이겨라도 가져가라며 내놓았던단다. 정 회장께서는 구두 한 켤레도 닳을 때까지 그것도 밟장이 닳으면 쟁을 박아 신고 다닌 것으로 유명하다. 자신은 철저히 검약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색하지 않았다. 사업가로서의 패기와 해안을 별개로 하더라도, 현대그룹의 주계열사가 위치한 울산에는 직원들을 위해 사택을 짓고, 근로자들의 자녀들에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나누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또한, 울산에 유일한 대학병원인 울산대학병원을 비롯해 현대예술회관 한마음회관 미포복지회관 등의 문화 여가시설의 건축은 기업이 터전을 함께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회향하고자 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울산 동구 주민이 시내로 수월하게 나갈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 공장 인근에 ‘아산로’를 지어 울산시에 기부하기도 했다. 소 떼를 몰고 북한을 찾는 모습이 신문 지면에 실렸던 것이 생각난다. 그 숫자는 함께 1001마리였던 것으로 한 마리에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 것으로 1차로 보면 500마리 중 백 마리는 임신 한 암소였던단다. 아름다운 배려 덕의 회향이 아니겠는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6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6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신문은 고난이도의 월드파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